

## 哲學界의 大兄!

### 玄愚 李明賢 선생의 퇴임에 부쳐

황 경 식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명현 선생이라 하면 적어도 필자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大兄(Big Brother)이라는 말이다. 물론 나보다 5~6년 연상이기도 하고 특히 나 같은 후배를 귀여워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단순한 형님이 아니라 굳이 대형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오는 까닭은 왜일까?

우선 외모로 보아도 현우 선생은 단지 다소 단신이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자라등같이 두텁고 큰 손발에 등치도 거구로 보이는 풍모라 한 때에는 먹돌장군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이 언제나 대인의 기품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의 심신에서 풍겨나는, 거역하기 어려운 카리스마는 짐작하건대 선배들에게는 곱끄러운 대상이었을테고 후배들에게는 두려움의 상대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카리스마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언제나 자신의 사익보다는 우리 모두의 공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는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논객이었고 그야말로 Public Mind를 잃지 않았던 것 같다.

현우 선생은 언제나 명철한 머리로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고 자질구레한 것에는 다소 서툴러 보였다. 그의 카리스마에서 오는 호연지기는 때로는 지나치기도 해 완고한 독선으로 보이기도 했고 언제나 장중을 장악하는 듯 했으며 이 같은 전횡은 가끔 질시와 개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의 우악한 고집이 사심이 없다고 믿었기에 그의 무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편이었다.

이명현 선생은 玄愚(가물가물 어리석음)라는 호를 지니고 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처럼 그는 “가물가물 어리석음”, “어리석은듯 어리석지 않은” 그야말로 양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편 투박해 보이는 터프가이면서도 내심 섬세하고 자상한 면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현우 선생은 이 같은 양수접장으로 철학과와 철학계에 대해 나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부었다.

이명현 선생을 생각하면 몇가지 재미있는 어록이 생각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선배 발로차기 운동”이다. 이는 선배나 전통의 권위에 얽매어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관행에 대한 저항적 몸짓이었다. 또한 그가 가장 싫어했던 소위 “가라사대 철학”이라는 말도 떠오른다. 이는 과거 선현들의 철학을 외워서 그대로 읊조리는 앵무새 철학에 대한 가치없는 풍자요 질타를 함축한다.

근년에 현우 선생은 우리의 전통철학이 당면한 각종 아포리아를 일거에 타결해줄 이른바 신 문법(New Grammar)을 고안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 정당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가 출간한 <신 문법>이란 저술은 서점가의 오해로 인해 국문법 코너에 진열되어 있어 매상이 부진했다는 후문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그의 구상이 큰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현 선생의 인생에 있어 부인 김귀현 교수와의 만남은 일대 사건이라 할만하다. 노총각 신세로 생을 마감하는가 했더니 40대 중반 무렵 운명의 여신은 아릿다운 한 여성을 만나 무딘 사나이의 눈에 스파크가 일게 만든 것이다. 지금 슬하에 귀여운 아들을 두어 미국에 유학중이며, 퇴임 후에는 가평 어느 강변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서울과 시골을 넘나들 계획이란다.

현우 선생의 인생역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이다. 한때 군사정권에 거역해서 해직교수로 고초를 겪기도 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교육개혁에 앞장서 교육부 장관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평안북도 용천 태생으로 남하하여 적수공권에서 교육부 수장이 되기까지의 그의 인생역정을 MBC성공시대에서 방영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입지전적 인물의 일대기가 아닐 수 없다.

6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인데도 그의 건강과 열정은 인생의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우선 한국 철학계의 일대경사인 내년 2008년 철학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철학대회를 준비하는 수장으로서 이미 아무도 해낼 수 없는 성과와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 나름의 정치감각과 애국충정으로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을 위해 <선진화 국민회의> 공동대표로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듯하다. 이모든 과업에 큰 성취 있기를 빌고 싶다.

끝으로 철학계의 빅브라더, 언제나 건재하기를 바란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단지 사라질 뿐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대형은 사라지지도 말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 빅브라더로 남아 있었으면!!